

2026년 6월 10일

Hana FX Daily Letter

대외 불안 속 원화의 버팀목은?

하나은행

외환파생상품영업부
이유정 연구원

달러/원 전망 및 동향

• 금일 전망 : 위험회피 심리와 미 CPI 경계감에 상승

daily range 예상: 1,515~1,530원

■ 미국과 이란 간 휴전 상태가 여전히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뉴욕증시에서 기술주가 급락하면서 위험회피 심리가 확산되었음. 여기에 오늘 밤 발표를 앞둔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이전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장 경계감이 한층 더 짙어질 것으로 예상. 이에 달러 강세 흐름 나타나는 가운데, 금일 달러/원 환율은 상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외환당국의 미세조정 가능성과 국민연금 선물환 매도에 대한 경계감도 상존하고 있어, 상승폭은 제한될 것으로 보임

■ 전일 동향 : 9일 달러/원 환율은 전일대비 22.9원 급락한 1,512.1원에 마감. 이스라엘-이란 간 교전 잠정 중단 등 중동 불안이 다소 완화된 영향으로 5.6원 내린 1,529.4원으로 출발. 장중 당국 스무딩 오퍼레이션 추정 물량과 국민연금 선물환 매도 소식 등에 1,510원대 초반까지 낙폭을 확대해 주간 거래를 마감. 그러나 야간장에서는 뉴욕증시 급락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에 1,532.7원으로 상승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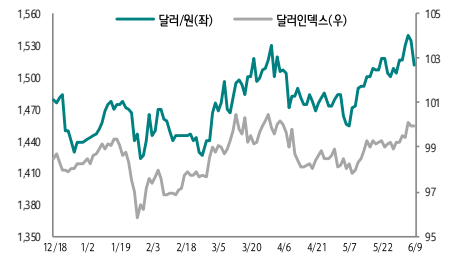
국제 통화시장 이야기

- (달러인덱스) 중동 긴장 완화 기대로 달러는 약세 압력을 받았으나, 이후 뉴욕증시 급락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강경 발언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 유입되면서 반동
- (유로-달러) 유럽중앙은행의 6월 통화정책회의를 하루 앞둔 가운데,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자 유로화는 소폭 강세를 보임
- (달러-엔) 일본 외환당국이 구두개입에 나서고 국제유가도 하락했지만, 엔화는 약세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160엔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음

하나에서 전해주는 FX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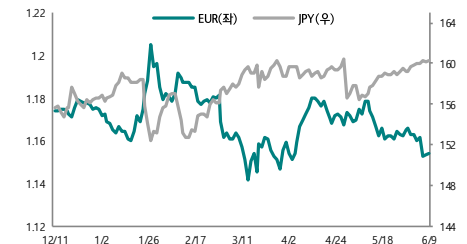
■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실질 GDP성장률이 전분기대비 1.8%, 전년동기대비 3.8%를 기록하며, 우리 경제의 회복력을 입증했음. 이는 지난 4월 발표된 속보치보다 각각 0.1%p, 0.2%p 상향 조정된 수치로, 설비투자 반등과 견조한 수출, 완만한 민간소비 회복세가 맞물리며 성장을 견인한 결과임. 특히 이번 발표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명목 GDP성장률이 전기 대비 10.5% 성장하며 5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는 점임. 글로벌 AI붐과 메모리 수요 증가로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과 수익성이 대폭 개선된 점이 주요한 것으로 보임. 이처럼 탄탄한 경기 회복세라는 펀더멘털적 호재에도 불구하고, 외환 시장은 아직 이러한 온기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현재 원화 가치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 연준 등 주요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라는 대외 악재의 영향권에 놓여져 있는 상황임. 향후 이러한 대외 리스크들이 점차 완화되고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으면, 한국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 그리고 원화 가치 역시 안정화되는 가운데 환율은 점차 1,400원대 중후반으로 진입할 것으로 기대됨

원화 환율 추이



구분	시가	15:30 종가	02:00 종가	NDF
달러/원	1,529.4	1,512.1	1,532.7	1,521.7

주요 통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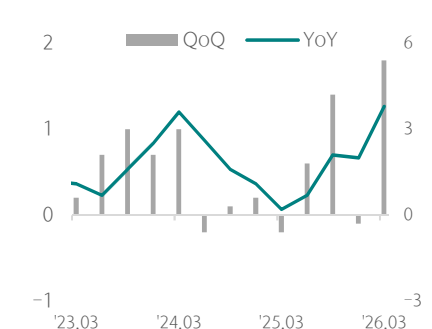


구분	EUR/USD	USD/JPY	USD/CNH
종가	1.1543	160.36	6.7785
전일대비	+0.0010	+0.23	-0.0061
재정환율	1,745.54	942.95	223.07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시간	지표	예상	이전
08:50	일본 PPI(YoY)	5.6%	4.9%
21:30	미국 5월 CPI상승률(YoY)	4.2%	3.8%
	미국 5월 근원CPI상승률(YoY)	2.9%	2.8%
22:45	캐나다 BOC 금리결정	2.25%	2.25%

한국 경제성장률 추이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결과에 대한 정확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투자 등 금융거래는 본인의 책임 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본 정보는 상품 가입 권유 및 유인 목적이 아닌, 고객 앞 참고를 위한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